

강연 1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 시 고려사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이 광 원 교수

196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은 복합레진과 접착시스템의 향상된 물성 때문에 구치부 사용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는 다수의 1급, 2급 수복물에 복합레진이 적응증으로 기술되며, 사실상 미국치과의사 협회(ADA)도 초기와 중등도 크기의 병소를 보존적 I, II 급 와동으로 형성한 뒤 복합레진으로 수복하는 기술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있다. ADA는 "복합레진을 유치나 영구치의 I 급, II 급, V 급 수복에 올바르게 적용하면 아말감의 수명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I 급과 II 급 복합레진 수복을 위한 관련된 재료들의 특성과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합수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의 한계와 술후 과민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구치부에 적용된 레진들의 마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을 위한 임상 시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단조로운 인접면 외형 형성 및 접촉점 개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및 기구들의 사용 조작에 대해 토의해 보고자 한다.